~고이즈미 야쿠모의 구마모토 생활~

고이즈미 야쿠모(라프카디오 헌)가 구마모토에서 생활한 것은 야쿠모가 제5고등중학교의 영어 교사로 구마모토에 부임한 1891년 11월부터 신문 기자로 고베 크로니클사에 전직한 1894년 10월까지의 3년간이었습니다.
당시의 구마모토는 세이난 전쟁 후 서구화 및 근대화에 의한 군사 도시화된 살풍경한 거리가 펼쳐져 있을 뿐으로 '일본적'인 절과 신사나 풍습을 기대했던 야쿠모는 실망을 금치 못했지만, 교사 생활을 보내면서 교장 가노 지고로나 과거 아이즈 번사였던 동료 아키즈키 가즈히사와 친분을 쌓았으며, 제5고등중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구마모토에 남은 옛 무사 기질인 '간소, 선량, 소박'으로 표현된 구마모토 정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쿠모는 정력적으로 집필 활동을 하여《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모습》을 출판합니다. 이는 야쿠모 문학 활동의 3대 기둥 중 하나인 르포르타주, 특히 여행기 및 체재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작품집입니다. 야쿠모가 구마모토를 떠난 후에 출판된《동쪽 나라에서》나《마음》에는 구마모토를 무대로 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Lafcadio Hearn's Time in Kumamoto

Lafcadio Hearn (also known by his Japanese name, Koizumi Yakumo) lived and worked in Kumamoto as an English teacher at Daigo Secondary School from November 1891 to October 1894. Through his friendships with Principal Jigoro Kano and coworkers like Kazuhisa Akizuki, as well as his professorial duties interacting with his students, Hearn came to recognize what he called the "Kumamoto Spirit," best expressed in the phrase "plain, good, and simple." Some of the stories Hearn wrote in Out of the East (1895) and Kokoro (1896), which were published after he had left Kumamoto, were based on the time he spent here.

~야쿠모의 하루~

시간대	시간	제목	개요
새벽	3~6시	【수면】	취침 중
아침부터 낮까지	6~7시 반	【기상】	오전 6시 자명종이 울리고 아내 세쓰가 깨운다. 화로 앞에서 일본제 담뱃대로 담배를 한 대 피운 후 신단에 참배한다.
		【아침식사】	간단히 계란과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신다.
		【준비】	아침식사를 마치면 인력거꾼이 온다. 세쓰가 소지품을 건네거나 주머니를 살펴봐 준 후에 양복으로 갈아입는다.
		【출근】	오전 7시 반경 모두 현관으로 나와 배웅한다. 야쿠모는 시가에 불을 붙이고 아내가 뻗은 손에 키스(유일한 외래 습관)를 한 후 집을 나선다.
	8~12시	【근무】	8시부터 제5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한다. 수업 시간은 50분이고, 오전 중에 4교시를 수업했다. 휴게 시간은 각 10분이다.
오후	12~15시	【점심식사】	가장이므로 야쿠모가 제일 먼저 점심을 든다. 때로는 료칸(여관)에서 짐수레꾼들과 함께 사케를 마시면서 점심을 먹을 때도 있었다.
		【낮잠】	매우 더운 날은 낮잠을 잔다.
저녁	15~18시	【여가】	시원한 날은 여성들이 재봉을 하고 남자들은 정원을 가꾼다.
		【목욕】	오후 6시 전후로 목욕을 한다.
밤	18~20시	【저녁식사】	저녁식사로는 스테이크나 빵 등의 양식을 먹는다.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 식사를 마친다.
		【담화】	가족이 함께 화로를 둘러싸고 신문을 읽거나 대화를 나눈다. 신문이 오지 않은 날은 드물게 놀이를 한다.
		【외출】	밤에는 이따금 외출하여 연극을 보러 간다. 램프가 켜진 야시장에서 간혹 진귀한 물건을 찾는다.
		【참배】	등불을 켜고 야쿠모 이외의 사람들은 서 있는 채 번갈아 가며 참배한다. 불상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참배한다.
		【취침】	취침할 때가 되면 야쿠모가 신호한다. 아내 세쓰가 '먼저 자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잠자리에 든다.
심야	20시~	【집필】	깊은 밤은 또한 집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때로는 집필에 마음을 쏟은 나머지 시간을 잊거나 자리에 누운 후에도 집필을 계속하곤 한다.

'1893년 10월 11일자 B. H. 체임벌린에게 보내는 편지'를 바탕으로 작성

~쓰보이의 두 번째 옛 집~

1892년 11월 야쿠모 일가는 니시호리바타마치 35번지로 이사했습니다. 야쿠모는 두 번째 옛 집이 무척 마음에 들은 듯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집이에요. 정원은 풍경을 본떠 고풍스러운 정취 면에서는 마쓰에 시절에 살았던 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어 놓았고, 소나무는 겹겹으로 가지가 겹쳐지듯이 손질되어 있으며, 깜짝 놀랄 만큼 수많은 돌들이 늘어서 있어요. 처마 밑에는 유리 풍경이 딸랑딸랑 울리고 있고, 화장실에는 원숭이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1892년 12월 21일자 B. H. 체임벌린에게 보내는 편지' 출처

그 후에 약 25엔의 큰 자금을 들여 개조한 서재에는 스토브와 유리 장지를 설치하여 겨울 추위를 이겨냈다고 합니다.《동쪽 나라에서(Out of the East)》의 '생과 사의 단편'에 기술된 우물 청소나 지장보살 축제의 모습은 두 번째 옛 집에 거주한 시절에 야쿠모가 직접 보고 들은 것입니다.야쿠모는 1894년 10월까지 이 옛 집에 살았습니다.

In November 1892, Hearn moved with his family from his first house (now the Lafcadio Hearn Former Residence historical site) to a house at 35 Tsuboimachihoribata in the suburban neighborhood of Tsuboi within the Kumamoto Castle town. Hearn loved the Tsuboi house and often wrote to his friends about it.

야쿠모가 기록한 구마모토의 정경 Hearn's Memories of Kumamoto's Scenery

'생과 사의 단편(Bits of Life and Death)'《동쪽 나라에서》수록

●'지붕에 물 뿌리기' 관습

야쿠모가 쓰보이의 두 번째 옛 집에서 맞이한 어느 여름날, 지붕에 물을 뿌리기 위해 지역의 소방 인부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붕에 물을 뿌리는 것은 여름철 건조한 시기에 행해지던 관습으로, 당시에는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햇빛의 열만으로도 지붕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방 인부들은 수동 펌프를 사용하여 지붕, 나무, 정원 등에 물을 뿌려 상당히 시원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물 뿌리기 후에 소방 인부들은 유복한 집에서 얼마 되지 않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야쿠모도 물 뿌리기 후에는 '술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사례금'을 답례로 건넸다고 합니다.

In order to prevent fires caused by fierce heat, firefighters would visit Hearn's Tsuboi House to spray water on the roof. In the story, Hearn gave them money to go for a drink.

●지장보살 축제의 잠자리 장식

두 번째 옛 집의 길 건너편에 있던 도간지 지장당(현존하지 않음)에서는 매년 여름에 지장보살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전날에 아이들이 기부를 부탁하기 위해 야쿠모의 집을 찾아오면 지장보살도 축제도 좋아했던 야쿠모는 기꺼이 기부했습니다. 축제 당일에 야쿠모가 집을 나서자 색종이로 감은 소나무 가지의 동체, 4개의 부삽(작은 삽) 날개, 반짝이는 질주전자 머리를 가진 1m 크기의 잠자리가 문 앞에 있었습니다. 기부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었던 이 멋진 잠자리를 불과 8세의 어린이가 혼자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야쿠모는 매우 탄복했다고 합니다.

There is a Jizo Festival held every summer at the Toganji Temple's Jizo Shrine that faces Hearn's Tsuboi House. It was at this festival that Hearn was emotionally moved by a dragonfly ornament that a child had crafted.

'여름날의 꿈(The Dream of a Summer Day)'《동쪽 나라에서》수록

●기우제 북이 있는 풍경

미스미의 우라시마야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야쿠모는 '둥둥둥 뱃속까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빛이 비쳐 들어오는 가옥 안에서 벌거벗은 남자들이 큰 북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쿠모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인력거꾼에게 묻자 기우제를 위해 북을 치고 있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지나쳐 간 마을들에서도 다양한 북소리를 들은 야쿠모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부락에서도 북이 울려 메아리처럼 반향이 전해지는 듯하다'고 기술했습니다. 현재 우토의 기우제 북은 국가 지정 중요 유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야쿠모에 관한 자료와 함께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On the path home to Kumamoto from Misumi city's Urashimaya Inn, Hearn could hear "a deep booming" that seemed to resound in his stomach. When he asked the rickshaw puller what it was, the man explained that they were drums that are beaten to pray for rain.

●나가하마무라에 있는 덴만구의 연못

미스미에서 구마모토로 돌아온 그 날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무더운 복날이었습니다. 갈증을 느낀 야쿠모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인력거꾼에게 말했고, 마침 근처 나가하마무라에 있는 덴만구 옆의 물 마시는 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차갑게 샘솟는 물로 채워진 연못의 나무 그늘에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고, 연못의 맑은 물을 마신 후 야쿠모는 '거기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국도 57호선의 옛 도로 옆에 자리한 나가하마 신사의 돌층계 옆에는 '덴만구의 연못'이 있으며, 야쿠모가 그린 나가하마무라의 음수장 전경에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이 남겨져 있습니다.

The road home from Misumi to Kumamoto is extremely hot, so when Hearn happened upon Nagahama village's (now Nagahama town in Uto city) Tenmangu temple, he decided to stop at the water fountain. The cool, spring-fed water was the perfect remedy to soothe his parched throat.